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무진장버스 공영제 정책제안

진안군, 농산물 10종·축산물 2종 등 총 25종 해당 품목 공급 가능 관내 업체 대상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진행된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진안군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안을 심의·의결했다.

모집분야는 △농산물 10종(곡류, 수삼(인삼), 고구마, 사과, 딸론, 토마토, 수박, 건고추, 건버섯, 건나물) △축산물 2종(돼지고기, 소고기) △농축산가공품 11종(홍삼, 김치, 주류, 흑돼지돈까스, 장류, 사과즙, 토마토즙, 영경퀴즈, 꿀벌이, 들기름세트, 염소진액) △체합권 2종(진안홍삼스파 상품권, 승마체험권)이다. 이는 지난 11월 2일 선정된 진안군 답례품 품목으로 해당 품목 공급(배송)이 가능한 관내 업체가 대상이다.

참가업체는 2개 이상의 답례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격대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2월 9일~13일까지로 평일 9시~18시 사이에 직접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인규협력팀을 방문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누리집 공



진안군은 지난 24일 진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진안군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안을 심의·의결했다.

고/고시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안군은 12월 중 진안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업체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양질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김명갑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진안군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기부자들을 위해 정성 가득한 답례품을 보내드릴 계획이다"며, "위원회에서 품질,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답례품을 선정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월동꿀벌 피해 최소화 나서

양봉 농가 대상 교육·주의사항 당부

무주군이 겨울철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교육과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등 월동준비를 시작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양봉농가가 월동기 피해예방 관리요령을 숙지하고 피해방지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등 월동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나선다. 군은 일부 양봉농가에서 벌꿀, 로열젤리 등 양봉산물을 8월까지 생산하면

서 응에 방제 적기인 7월에 방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응에(진드기와 곤충)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군은 겨울철을 맞아 꿀벌이 약화 또는 폐사할 우려가 있어 각 농가에 꿀벌 방제약품 내성 방지를 위해 약품 교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 24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

나실에서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월동 봉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양관리(총제적 관리)와 방제약품 및 약제 선택 등 방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벌통 내부의 온도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ICT 장비를 적극 설치하고 이상 발생시 군에 신고할 것을 각 농가에 주문했다. 또 여왕벌 산란이 이뤄지지 않도록 일정 온도 이하로 벌통 내부관리 및 먹이를 충분히 급여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지역 맞춤형 국가예산사업 발굴 교육 실시

진안군은 28~29일 이틀간 진안고원치유숲에서 국가예산 관련 공직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경험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빙해 2023년 정부부처 예산안 분석

을 시작으로 진안군의 현안과 연계한 국가예산확보 신규사업발굴에 중점을 두고 부서별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조사 작성 등 국가예산 발굴 과정 전반에 대해 상세히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진안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타 지역의 국가예산확보와 공모사업 선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오는

12월까지가 2024~2025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단계 기간임을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발굴한 신규사업들에 대한 구체화를 위해 컨설팅을 운영도 함께 진행한다. 진안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역점을 두고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논리 개발 등 발 빠른 대응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최선의 대책"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사진)이 무진장버스의 공영제 전환을 제안했다.



이해양 의장은 지난 25일 진안에서 열린 '우리 이제 말해보자 행복한 무진장버스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무진장버스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정책제안을 했다. 이해양 의장은 평소 주민이 만족하는 무진장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간담회와 견학, 민원처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무진장여객은 매년 운영적자가 가중되고 있고 지자체는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다. 기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직원 승합차로 승객을 태우는 등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까지 나왔다"며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양 의장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

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주민의 편의와 안전이 보장된 대중교통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행정이 적극 개입해야 하며 그 해법이 버스공영제"라고 말했다.

행정이 직접 운영하는 버스공영제는 초기 재정부담이 늘어나지만 수익에 얼마이지 않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배차간격과 차량유형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승객의 민원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버스행정이 투명해진다

는 장점이 있다. 이해양 의장은 신안군과 정선군의 버스공영제가 모범적으로 정착한 점을 상기하며 "개선된 버스노선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버스공영제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며 "무주, 진안, 장수군이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 지자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버스의 공공성을 지키는 교통복지 함께 구현해가자"고 제안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신청 독려

장수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을 상대로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등기를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관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수군은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토지 1,591건, 건물 21건을 접수해 현재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이의신청 토지 268건을 제외한 토지 1,153건, 건물 18건에 대한 확인서 발급 및 등기정리를 확인했다. 아직 확인서 발급 및 등기정리를 이행하지 못한 토지 170건, 건물 3건에 대해서는 등기신청 기간까지 문자서비스 및 전화 안내를 통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2기 반딧불축제 아카데미' 운영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가 제2기 반딧불축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반딧불축제 아카데미는 다각도로 변화는 새로운 축제의 혁신과 군민들에게 축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전통문화 시연체험관 2층 다목적영상실에서 다음달 1일부터 2023년 2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총 8회)에 실시된다. 교육 과정을 보면 △축제 및 이벤트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축제 및 이벤트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접근 △축

제경영의 실제와 전략 △국내외 축제 성공사례 등 8개 주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강사는 배재대학교 축제대학원 정강환 원장을 비롯해 사)한국문화관광포럼 최상규 대표, 배재대학교 김주호 교수, 전주문화관광재단 백성우 팀장, 금산축제관광재단 남근우 팀장 등 축제 전문가들로 강사진이 포진돼 있다. 한편, 이번 반딧불축제 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한 자는 자격증 시험을 거쳐 축제 이벤트 경연사 3급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진안경찰서 체납차량 특별단속 실시

진안군은 진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진안군보건의 일대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자동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체납조회시스템을 활용해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안, 자동차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군은 체납제 징수를 위한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11월 말까지 '체납제 징수 특별기간'으로 운영하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할 계획이다. 특히 음·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3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수시로 시행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등 체납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실제 거주 가구에 문패 설치

무주군이 치매안심마을 실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주소와 가구 구성원 모두의 성함이 함께 각인된 문패를 설치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치매친화공동체 모델 조성을 목표로 운영중인 치매안심마을 문패 설치는 5개소 342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치매안심마을'이란 마을주민이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치매 어르신 또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뜻한다. 군은 무풍면 금척마을과 설천면 상길마을, 적성면 길왕마을, 안성면 덕곡마을 등 모두 13개 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고 활발하게 치매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찾아가는 치매고위험군 치매조기검진과 치매인식 캠페인 등 청춘사진관, 치매안심마을 문패 설치, 청춘사진관, 힐링체험 '기억산책', 색채심리치유프로그램, 기억 답아매일청 담기, 우리 동네 화단 꾸기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